

##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와 경제학:

학술지 분석 및 방향성 모색을 중심으로\*

나희량\*\*

### I. 서론

우리나라의 동남아 지역연구(Southeast Asian studies)는 이미 지난 30여 년 동안 정치학,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진행되어 왔고 그 연구 성과도 상당부분 축적되어 왔다.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국제경제연구원 등 일부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소수의 학자들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된 동남아 지역연구는 1990년대의 제 2세대를 지나<sup>1)</sup> 이미 제 3세대 학자들로 이어져 오는 등 연구 인력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학자들의 참여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신운환·이성형 1996; 조홍국 2001; 박승우 2009; 전제성 2006, 2010).<sup>2)</sup> 연구 주제에 있어서도 동남아 지역연구

\* 본 연구는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NRF-2009-362-B00016). 출고에 대해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또한 본 논문의 작성을 위해 분류한 동남아 관련 논문들의 주제, 학문영역 등이 해당 논문을 작성한 저자들의 견해 및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과 또한 그에 따른 오류는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조교수 Tel: 051-629-5767, Email: heeryang@pknu.ac.kr.

1)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본격적인 학자들의 모임은 1990년 12월 8명의 정치학자들의 ‘동남아정치연구회’를 시작으로 이후 1992년 8월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역사학, 어문학 등 정치학 이외의 연구자들을 포괄하는 ‘동남아지역연구회’로 확대, 개편되었고 이는 최종적으로 2003년 12월 (사)한국동남아연구소로 전환되었다.

의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사회, 경제, 역사 등과 관련된 주제를 벗어나 생태, 환경, 인문, 예술 등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물들이 생산되고 있다.

동남아 지역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연구 주제로의 확대뿐만 아니라 각 분과학문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이론적 체계와 연구방법론을 복합적, 중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분과학문 간 경계를 희석시키고 학문 간 융합을 촉진하는 등 학제 간 공동·협력 연구의 필요와 특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더 나아가 동남아 지역연구는 학문 간 통섭과 융합이라는 시대적 필요 및 추세에 힘입어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그 양적, 질적 외연의 확대는 물론 독립적 학문분야로서의 ‘동남아학’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타진해 왔다.<sup>3)</sup> 그리고 최근 3~4년 전부터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나라 동남아 교육의 환경과 과제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동남

2) 신윤환·이성형(1996), 조흥국(2001), 박승우(2009)는 1980년대 후반 이후에 동남아 지역연구에 입문한 사람들을 제 2세대로, 그 이전에 입문한 사람들을 제 1세대로 구분하였다. 더 나아가 전제성(2006, 2010)은 2000년대 이후 입문한 사람들을 제 3세대로 분류, 총 세 개의 세대로 구분하였는데 전제성의 제 3세대는 박승우의 제 2세대의 제 3코호트에 해당한다.

3) 지역연구로서의 동남아 지역연구가 ‘연구’의 수준을 벗어나 ‘동남아학’이라는 독립적 분과학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유의 이론, 방법론 등의 학문적 토대가 성립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현재의 동남아 지역연구가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 특히 방법론적 차원의 경우에는 사회과학의 여러 분과학문의 방법론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과학적 방법론의 조건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동남아학’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학문적 이론이 존재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분과학문 간 경계 및 장벽이 강한 한국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동남아 지역연구가 ‘동남아학’으로 인정받기 위한 충분한 환경 또한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과 한계를 인정하고 본 논문에서는 일단 ‘동남아학’을 동남아 지역연구가 지향해야 할 학문적 목적지로서 설정하고 ‘동남아학’을 지향하는 중간단계로서의 동남아 지역연구와 경제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동남아학’에 대한 학자들 간의 논의 및 제론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범위 상 본 논문에서는 제외한다. (동남아 지역연구를 포함한 지역연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논의와 내용은 신윤환·이성형(1996), 야노 토루(1997), 정해조(1998), 조기숙(1998), 김경일(1998), 이상섭·권태환(1998), 전성홍(2002) 등을 참조)

아 지역연구 인력에 대한 분석, 연구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연구 등 동남아 지역연구의 토대 강화와 인적 자원의 확충을 위한 의견들이 제시되어왔다(전제성·이재현 2008; 이창규·정유경 2008; 박승우 2009).

분과학문 분야에서도 개별적으로 그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역할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7년 10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 동남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에 대한 회고와 성찰’이라는 주제 하에 인류학, 역사학, 어문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을 대표하는 동남아 지역연구자 간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sup>4)</sup> 이후 동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성과를 바탕으로 각 분과학문분야에서 동남아 지역연구에 대한 회고와 성찰,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론 및 제안들을 보다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정치학 분야에서는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정치학의 연구추이와 그 학문적 공헌, 한국 정치학의 동남아 지역연구에 있어서의 차별성과 특징 그리고 향후 정치학의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발전방향 등에 대한 논의 등이 이미 상당 수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전제성 2010).

이러한 학문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학 분야에서도 그 간의 동남아 지역연구에 대한 평가와 그 공헌 및 한계, 그리고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경제학 분야에서의 방향성 설정이라는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한 단계 진보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동남아 지역연구 쪽에서도 그 외연적 확대와 내면적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동

4) 토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08년 『동남아시아연구』 18권 2호에 실린 “(기획좌담)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 참조

남아학'이 필요로 하는 과학적 방법론의 확보 그리고 더 나아가 이론적 체계의 토대 형성을 위한 기초적 작업으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논의는 동남아를 연구하는(연구할) 한국의 경제학자들에게도 지난 한 세대를 정리하고 동남아 지역연구에서 요구하는 과제와 이에 대응하는 학문적 도전을 줄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5)</sup>

우리나라의 동남아 지역연구 중 연구주제만을 놓고 보았을 때 경제 문제<sup>6)</sup>를 다루는 논문의 수는 다른 주제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전제성 2010).<sup>7)</sup> 하지만 경제 관련 이슈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류 경제학 내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동남아 지역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에

- 
- 5)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학 분야에서 동남아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박변순(2011)의 연구는 매우 시의적이고 유용한 자료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1970년 대 말 이후 한국에서의 동남아 경제연구를 시기별, 주제별, 주제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 개관하고 그 성격과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 동남아 경제 연구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지대했고 연구결과의 측면에서는 주로 정책보고서의 발간 등 정책지향성이 강한 모습을 보인다. 연구주제는 현지의 경제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았으나 한국기업의 진출 환경, 한국과 동남아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연구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남아 현지 경제를 연구한 경우,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경제 분석이 많아서 연구의 구체성과 깊이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동남아 경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과정의 개편, 국제경제론의 방법론 대신 지역지향적인 현장 연구의 강화, 정부나 대학에서의 연구지원 강화 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동 연구가 주로 기존의 동남아경제 연구에 대한 분석 및 특성 등에 집중하고 있다면 본 연구는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경제학의 역할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차별성과 의미가 있다.
- 6) 일반적으로 경제학은 희소한 자원을 전제로 무엇을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생산, 소비, 분배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으로 정의되어진다. 아울러 정치경제학적인 의미에서는 경제학은 법률, 정치 등의 상부구조를 규정하는 경제적 하부구조, 즉 생산력, 생산관계 및 생산양식의 변화 및 상호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동남아 지역연구에 있어서도 경제학의 주요한 역할은 위의 경제학 연구 분야와 중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7) 전제성에 따르면 동남아 지역연구의 대표적 학술지인 『동남아시아연구』에 1992-2005년 실린 총 180편의 논문 중 경제 관련 논문은 37편으로 21%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정치관련 논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이다.

그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효율(efficiency)’과 ‘공평(equity)’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학의 본질 상 경제학자에게 ‘동남아’라는 특정 지역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낮고 학문 집중도에 있어서도 동남아 지역연구로의 전문화(specialization) 내지는 천착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오명석 외 2008). 또한 이는 동남아의 경제발전 정도가 낮고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부문에 있어서도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전통적 교역대상 국가 및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낮은 데에도 기인한다(오명석 외 2008; 박변순 2011).<sup>8)</sup>

다시 말해 한국의 경제학자에게 동남아 지역연구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해 봐야 별 소득 없는, 그래서 동남아와 특별한 인연이나 계기 또는 직업적 차원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연구 분야가 되는 것이다. 또한 연구의 성과물을 분과학문 간에 공유함에 있어서도 방법론적 차이와 해석의 난해함 등으로 인해 광야의 외치는 소리 또는 소수의 동남아 경제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 간의 회동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보다 완결된 동남아 지역연구 더 나아가 ‘동남아학’의 지향을 위해서는 경제학 분야의 참여와 기여는 필수적일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조류 속에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확대와 발전 등은 세계화(globalization)와 경제적 교류 및 통합의 진행 속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지역 간의 상품, 자본, 노동, 기술 등의 이동 및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초국가적(transnational)인 경제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국가 간, 지역 간의

---

8) 이 외에도 경제학의 경우 해외저널을 포함한 전공분야의 학술지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한 독자층을 가지고 있어 경제학자들이 논문을 게재함에 있어 국내의 지역연구 전공 학술지보다 국내외 경제학 전공 학술지를 선호하는 경향도 그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연계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한다면 동남아 지역연구에 있어 다층적으로 발생하는 지구적, 초국가적 경제 현상들을 설득력 있게 분석, 이해 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이론과 방법론이 필요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특히 동남아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대외개방 및 해외자본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및 성장을 지속해 왔다.<sup>9)</sup> 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 차원에서도 동남아경제의 역동적 발전과 변화의 요인에 대한 연구는 동남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또한 세계 및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을 관통하는 보편적 가치와 원리를 추구하는 경제학의 공헌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논문은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경제학의 역할과 방향성이라는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한 문제제기 또는 발제자 역할을 하고자 한다. 이 작업은 경제학과 동남아 지역연구의 학문적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반드시 한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동남아 관련 경제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sup>10)</sup> 이를 통해 경제학의 동남아 지역연구의 특성과 흐름을 파악하고 동남아 지역연구에 있어서 한국 경제학의 실제적인 공헌 여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동남아 경제 연구를 위한 벤치마킹이라는 의미에서 외국의 대표적 동남아

9) 동남아의 경제개발전략은 주로 대외개방을 통한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국가별로 보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은 이미 1970년대 이후 해외자본유치 및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통해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이에 자극을 받은 인도네시아가, 1990년대 이후에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및 경제개혁, 개방정책을 통해 그 뒤를 따르게 된다. 그리고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던 미얀마가 최근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치활동 재개를 허가하고 외국인투자법 개정, 관리변동환율제도로의 전환 등 경제개혁, 개방을 추진하는 등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박변순(2011)의 연구와 일정 부분 중첩될 수 있다.

지역연구기관인 미국 코넬대학의 동남아 프로그램(SEAP), 일본 교토대학의 동남아시아연구소(CSEAS), 싱가포르국립대학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 등의 경제학 연구 및 활동, 그리고 그 기여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남아 지역연구와 경제학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동남아 지역연구의 외연 확대와 연구의 질적 강화를 위해 향후 한국의 경제학 분야에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우선 한국의 동남아경제에 대한 연구를 개괄하고 그 성격 및 특성에 대해서 분석한다. 3장에서는 동남아 지역연구와 경제학의 연계성을 찾기 위해 경제학의 세부 학문분야인 개발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의 두 분야를 중심으로 그 연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다. 4장에서는 벤치마킹을 위한 외국의 사례 및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학의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역할 및 방향성 그리고 제언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앞의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 II. 현황 분석

### 1. 연구 성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문제는 지역연구의 가장 중요한 연구대상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고 방법론적 차원에서도 경제학의 활용 가능성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에 부응해야 하는 경제학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역연구에 대한 경제학의 논의 및 연구는 산발적이고 제한적이다(박노호 1996; 이수훈 1998). 경제학의 동남아 지역연구에 대한 논의도 소수에 불과하다(황원규

2001; 박변순 2011). 또한 우리나라의 지역전문가 중 경제학 전공자(박사과정 기준)는 14%정도만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학의 과학화를 위한 경제학의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박노호 1996; 신윤환·이성형 1996).

이처럼 그 학문적 필요성과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제학과 지역연구 간의 학술적 상호접근이 쉽지 않은 것은 두 분야 간에 존재하는 학술적 성격과 현상분석방법의 차이에서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이수훈 1998). 또한 이는 지역연구를 과학적 연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학문적 우월주의 또는 오만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황원규 2001). 이와 같이 동남아를 포함한 일반적 의미에서의 지역연구를 위한 경제학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미미한 상황에서 동남아 지역연구에 대한 경제학자의 논의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sup>11)</sup>

이에 비해 어문학, 역사학, 인류학, 정치학 등 타 학문 분야의 동남아에 대한 연구 및 논의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제성(2010)은 동남아 지역연구에 있어 정치학의 공헌과 과제에 대한 논의를 비교적 상세히 전개하여 정치학 분야의 동남아 지역연구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타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도 신선한 도전을 던졌다. 본격적인 경제학자들 간의 동남아에 대한 학문적 토론과 논의의 기회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2007년 10월 서울대학교에 개최된 한국동남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마련되었다. 동학술대회에서 경제학 분야 발표자로 나선 박변순(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990대 이후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경영학회지 등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동남아를 주제로 한 논문의 경우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에서 정부의 정책적 필요 및 관점에서 작성된 연구물을 제외하면 주류 경제학에서 발표된 논문은

11) 경제학자의 논의로는 위에서 언급한 황원규(2001), 박변순(2011)의 연구 정도에 불과하다.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2)</sup> 또한 각 대학에서의 동남아경제에 대한 강좌도 상명대, 부산대, 한국외대 등 극히 일부 대학 및 대학원에 국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13)</sup> 박변순은 우리나라에서 동남아에 대한 경제학 연구가 이렇듯 극히 제한적인 것은 동남아경제가 미국, 중국, 일본, EU 등과 같은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국 및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14)</sup> 이렇듯 주류 경제학에서 동남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sup>15)</sup>

한편 주류 경제학의 학술지에 비해 동남아 지역연구 전문학술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지역연구 관련 학술지의 경우에는 비교적 다수의 동남아 관련 연구물이 축적되어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지역연구 관련 주요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는 국제지역학회의 『국제지역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의 『국제·지역연구』 및 영문저널인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그리고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의 『국제지역연구』 및 영문저널인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등이 있으며 비 학술연구재단 등재지로는 국제지역연구학회의 『국제지역학논총』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동남아 지역연구에 특화된 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는 한국동남아학회의 『동남아시아연구』가 대표적인 학술지로 평가받는다. 이 외에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의

12) 잘 알려진 주류 경제학의 학술지로는 한국경제학회의 『경제학연구』, *The Korean Economic Review*, 한국경제연구학회의 『한국경제연구』, *The Journal of the Korean Economy*, 한국국제경제학회의 『국제경제연구』,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등을 들 수 있다.

13) 현재 동남아경제 관련 강좌는 이들 대학 외에 서울대 국제대학원, 고려대 국제대학원, 부산외대 일반대학원의 국제지역학 전공 등에도 개설되어 있다.

14) 박변순의 발표 및 토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08년 『동남아시아연구』 18권 2호에 실린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 389-399쪽 참조.

15)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주류 경제학 학술지에 실린 동남아 관련 논문에 대한 분석은 제외한다.

『동아연구』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개별 국가 및 지역 관련 논문을 싣고 있다. 특히 2009년 동아연구소의 동남아 관련 연구 사업이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 지원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동남아 지역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 동남아 개별국가 차원의 학술지로는 한국태국학회의 『한국태국학회논총』과 동남아 문화, 예술 분야의 학술지인 부산외대 동남아지역원의 『수완나부미』 등이 있다. 이들 지역연구 학술지에 게재된 동남아 관련 논문 중 경제 분야 논문의 내용과 비중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학의 동남아 지역연구에 있어서의 학문적 현황, 공헌 및 한계 그리고 향후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동남아 지역연구 부문에 있어 대표적이고 권위 있는 학술지인 『동남아시아연구』를 살펴보도록 하자. 전제성(2010)에 따르면 1992~2005년 사이 『동남아시아연구』에 게재된 총 180편의 논문 중 경제 관련 논문은 37편으로 전체의 21%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치 분야의 23%(41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이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16%, 29편), 역사(11%, 19편), 외교·국제관계(11%, 19편) 등의 순이다. 이렇듯 비중으로만 보면 경제 분야에서의 동남아 지역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동 학술지에 실린 경제 관련 논문들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먼저 1992년 창간호부터 최근 발간된 22권 1호(2012년 2월)까지 동 학술지에 게재된 경제 관련 논문의 저자를 보면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자 외에도 어문학, 인류학, 역사학, 정치학자 등 비경제학자가 상당히 많은 비중(40%, 총 57편 중 23편)을 차지하고 있다. 논문 주제의 경우 무역 및 투자, 경제협력 및 개발, 동아시아 경제위기

등 거시경제 측면의 주제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논문의 목적과 성격의 경우 국가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정책 지향성이 강한 논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6)</sup> 이렇게 보면 동 학술지에 실린 경제 관련 논문은 양적으로는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상당량의 연구가 ‘경제학자’에 의한 ‘경제학’ 연구가 아닌 ‘非경제학자’에 의한 ‘경제 문제’와 관련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1992~2012년 2월 사이 『동남아시아연구』에 실린 총 297편의 논문 가운데 경제 관련 논문은 총 57편으로(19%)로 분석된다.<sup>17)</sup> 우선 이들 논문의 주제를 살펴보면 주로 국가, 지역 간 경제협력, 경제개발을 위한 경제정책, 국제무역, 국제금융 등과 관련된 논문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다시 말해 주로 거시경제적 문제를 다루는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경제주체의 경제적 의사결정과 행태에 대한 미시경제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동남아가 향료 무역의 경우와 같이 세계경제사의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의 경제사 관련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sup>18)</sup> 결국 57편의 논문 중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경제학자에 의해 작성된 경제학 논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반을 약간 넘는 35편(60%, 총 논문 수 기준으로 11%)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35편의 논문 중에서도 현재 주류 경제학의 일반적 방법론이 되다시피 한 계량경제학 모델에 근거한 논문은 17편으로 총 논문 수 기준으로 6%에 불과하다.<sup>19)</sup>

16) 지역연구에 있어 정책관련 연구에 대한 지나친 편중 현상에 대한 지적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조흥국·오명석·박사명 1998). 또한 이러한 문제는 비단 경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남아 지역연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17)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표1> 참조.

18) 경제학자가 쓴 동남아 경제사 관련 논문은 길인성(1995)의 "근대 전기의 향료무역과 동남아 경제." 『동남아의 정치경제』가 유일하다.

19) 저자는 경제학 논문의 작성을 위해 계량경제학 방법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계량경제학 방법론을 중시하는 현재의 주류 경제학의 일반적인 추세를 비추어서 분석한 것이다. 경제학 연구를 위해 반드시 정교한 계량경제학 방법론이

이렇게 본다면 『동남아시아연구』에 게재된 논문 수를 기준으로 할 때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경제학의 공헌은 알려진 것보다 타 학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비경제학자의 경제 관련 논문은 상대적으로 많은데 비해 경제학자의 경제학 논문은 실제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계량경제학 모델을 활용하고 있는 17편의 경제학 논문을 세부 분야로 분류하면 국제무역, 국제금융 등과 같은 국제경제학의 주제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가 또는 지역 간 경제적 교역 및 협력 등의 주제에 국한되어 있고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적 현상을 관류하는 경제적 인과관계에 대한 미시적 단위의 연구는 부족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동남아경제 연구 인력의 경우 박승우(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 동남아 지역연구자는 84명 정도로 이중 경제학 전공자는 11.9%를 차지하는 10명 정도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중에서도 최근까지 꾸준히 동남아경제에 대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경제학자는 손에 꼽힐 정도이다.<sup>20)</sup> 이처럼 동남아 지역연구의 대표적인 학술지인 『동남아시아연구』의 사례를 놓고 보아도 실제적으로 경제학자가 쓴 경제학 논문은 일부분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연구 인력도 매우 한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동아시아 지역연구의 전문학술지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의 『동아연구』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에는 동남아 관련 논문이 비교적 활발하게 게재되고 있지만 그 중 경제 관련 논문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1982~2011년 『동아연구』에 게재된

---

필요한 것은 아님을 강조한다.

20) 실명을 들자면 권율(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나희량(부경대), 박번순(삼성경제연구소), 원용걸(서울시립대), 이충렬(고려대) 등을 들 수 있다.

523편의 논문 중 동남아 관련 논문은 46편으로 약 8.8% 정도만을 차지한다.<sup>21)</sup> 하지만 46편의 동남아 관련 논문 중 경제 관련(노동, 경제발전, 이주, 산업) 논문은 4편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이중에서도 경제학자의 논문은 단 1편에 불과하다. 이처럼 동남아 지역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동아연구』의 경우에도 경제학의 공헌은 극히 미미하다.

다음으로 지역연구학회의 『국제지역연구』는 주로 국가 및 지역과 관련된 경제, 경영, 통상 논문들이 게재된다는 점에서 지역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경제, 경영 학자들의 동남아에 대한 관심과 공헌도를 알아볼 수 있는 시준점이 될 수 있는 학술지로 평가된다. 1997~2011년까지 동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총 385편이고 이중 경제, 경영, 통상 관련 논문은 89%인 346편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385편의 논문 중 동남아 관련 논문은 15편으로 총 논문수의 3.9%에 불과하고 특히 이중 경제학 논문은 5편으로 경제, 경영, 통상관련 논문 346편의 1.5%만을 차지한다.<sup>22)</sup> 또한 이 5편 논문 중 계량경제학 모델을 사용한 논문은 2편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렇듯 그나마 지역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의 경우에 있어서조차도 동남아지역은 그 주요 관심 대상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외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국제지역연구』 및 영문학술지인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는 우리나라 지역연구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발간되는 학술지라는 의미에서 지역연구 분야에서 동남아 지역연구의 위치와 비중을 가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국제지역연구』 및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에는 경제 관련 분야를 포함한 정

2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표2> 참조.

22)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표3> 참조.

치, 사회, 문화, 역사 등 광범위한 주제의 지역연구 논문들이 게재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앞에서 분석한 학술지들과 같이 동남아 지역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경제 관련 연구는 그 비중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7~2011년까지 동 학술지에 실린 총 논문은 『국제지역연구』 350편,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총 139편으로 이중 동남아 관련 논문은 각각 8편, 2편으로 총 논문 수 중 각각 2.3%, 0.7%에 불과하고 특히 이중 경제 관련 논문은 각각 6편, 2편으로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sup>23)</sup> 이렇듯 지역연구분야에 있어서조차도 동남아지역에 대한 연구 성과는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경제학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의 『국제·지역연구』 및 영문학술지인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의 경우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발간하는 지역연구 학술지라는 의미에서 동남아 지역연구에 대한 학문적 엄중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국제·지역연구』 및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의 경우에도 특정한 학문 분야에 제한하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비교적 다양한 주제의 지역연구 논문들이 게재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동남아경제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먼저 『국제·지역연구』의 경우를 보면 1992~2011년까지 동 학술지에 실린 총 논문은 526편으로 이중 동남아 관련 논문은 10편으로 이중 제 2권 제 4호(1993년)의 동남아 관련 특집호의 논문 8편을 제외하면 단 2편에 불과하다.<sup>24)</sup> 특히 동남아 관련 논문 10편 중 경제 관련 논문은 3편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영문 학술지인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의 경우를 보더라도 1994~2011년까지 동 학술지에 실린 총 논문은 245편으로 이중 동남

2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표4> 참조.

2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표5> 참조.

아 관련 논문은 단 6편에 불과하며 이중 경제 관련 논문은 4편에 그치고 있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역연구 관련 주요 지역연구 학술지를 분석한 결과 동남아 지역연구 중 경제 관련 연구(특히 경제학자의 연구)는 그 비중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시기 구분 및 연구인력 등 인프라

위의 『동남아시아연구』를 비롯한 지역연구 학술지에 실린 경제 관련 논문들을 포함해서 동남아경제 관련 단행본, 그리고 기타 지역연구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바탕으로 연구주체의 특성을 그 시기 별로 나누어 보면 대체로 다음의 세 개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sup>25)</sup> 우선 제 1기는 1997~98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전의 연구, 제 2기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영향이 지대한 시기인 1998~2000년, 그리고 제 3기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극복 이후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경제 질서가 강화되고 중국경제의 부상이 본격화되는 2000년대 이후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 1기의 연구들은 주로 한국과 동남아 간 경제협력, 한국기업의 동남아에 대한 직접투자, ASEAN, AFTA(ASEAN Free Trade Area) 등 지역통합체의 경제적 효과 및 성과 등 주로 경제협력 및 통합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동남아 개별국가 차원의 연구는 태국, 베트남 등 몇 개 국가들에 한정되어 있는 등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

25) 시기별 구분은 저자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박변순(2011)은 동남아 경제연구의 시기별 구분을 주로 동남아경제의 변화와 발전의 형태에 따라 1970~1989년, 1990~1997년, 1998~2005년, 2006~2011년 등의 4대 시기로 구분하였다. 『동남아시아연구』의 경우를 제외한 다른 학술지들의 경우 동남아경제 관련 논문이 간헐적으로 발표되고 있어 연구주체를 시기별로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의 시기 구분은 주로 『동남아시아연구』에 게재된 경제 관련 논문의 주제 변화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제 2기의 경우 1997~98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원인 및 극복 방안 그리고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 경제위기 이후 전개되는 개별 국가들의 경제정책 및 경제구조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시작된 경제학의 동남아경제에 대한 관심은 그 동안 동남아 지역연구에서 소외되어 왔던 경제학의 역할과 가치를 새롭게 재평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동남아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동 지역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등 역외 국가 및 지역경제에까지 큰 타격을 준 것은 경제학자들의 학문적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경제학자들이 비로소 동남아경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다소 아이러니한 일일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시기부터 한국과 동남아 학자들 간에 경제위기의 극복 및 경제협력에 대한 학술교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른 양 지역 간의 학술 교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sup>26)</sup> 또한 동남아 개별 국가들에 대한 연구도 크게 증가하였고 그 관심 영역도 체제전환국들인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으로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제 3기에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동남아경제의 세계경제로의 통합 및 타 지역경제 또는 세계경제와의 상호관계, 그리고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확장에 따른 인한 동남아경제에 대한 영향과 반작용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한-ASEAN FTA 등 동남아 국가들의 역내 경제통합 뿐만

26) 그 대표적 사례로는 2000년 2월 방콕에서 한국동남아학회와 ASEAN 대학네트워크(AUN)가 공동 주최한 '동남아와 한국에서의 경제위기'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학술대회 등이다. 그리고 한국동남아연구소가 주관하여 동남아 관련 주제로 각각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KOREA포럼, ASEAN포럼 등도 한국-동남아 학자들 간의 학술교류의 대표적 사업이다.



아니라 역외 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통합이 보다 구체화되고 현실화 됨으로써 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전 시기의 연구는 주로 순수경제학 분야 보다는 개발경제학과 중첩되거나 정치적 요소들과의 연계성이 존재하는 정치경제학적인 방법론을 통한 연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주로 정치학자 등 非경제학자들의 연구라는 점에서 경제학의 방법론 및 이론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한계를 갖는다. 이렇게 볼 때 제 3기 이후 단순한 경제 관련 연구의 차원을 벗어나 계량경제학 모델 등 일반화된 경제학적 이론과 방법론을 활용한 경제학 논문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표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동남아경제 연구 인력의 경우에도 학계 및 경제연구기관 등을 포함해서 15~20여 명에 불과하고 이들 가운데에서도 지속적으로 동남아경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꾸준한 연구 실적을 축적해 온 연구자들은 10여 명 미만으로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sup>27)</sup> 동남아경제에 대해 꾸준히 연구 성과를 축적해온 경제연구기관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출입은행, 포스코경영연구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경제연구기관 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포스코경영연구소는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28)</sup> 다른 연구기관의 경우 동남아경

27)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들의 실명은 제외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박변순(2011)의 연구를 참조할 것.

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우 세계지역연구센터의 동서남아팀에서, 포스코경영연구소는 글로벌연구센터의 글로벌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물은 대부분 공개가 되는 반면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경우 모기업인 포스코의 동남아지역 등 해외 사업 진출을 위한 사내 컨설팅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그 연구 성과물에 대한 접근은 제한적이다.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경우 최근 월간지인 '친디아저널'에 동남아 경제 관련 연구물을 게재하고 있다. 이는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사업 등 동남아로의 사업 진출을 위한 사전연구(feasible study)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에 대해 1~2명 정도의 연구원이 업무를 분담 또는 특화하여 연구물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9)</sup>

학계의 경우 동남아 지역연구는 동남아의 언어 전공 학과들이 개설되어 있는 한국외대, 부산외대 등의 동남아 지역연구 관련 학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지만 동남아경제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의 경우 고려대, 부산외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인하대 등에 산재되어 있다. 동남아경제와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도 극히 제한적으로 서울대 국제대학원, 고려대 국제대학원, 한국외대 국제지역학대학원, 부산외대 국제지역학대학원 등에 국한되어 있고 그나마도 학부가 아닌 대학원 과정에 그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경제학의 위치는 실제적으로 겹보기와는 다르게 양적인 면에서 조차 다른 분과학문의 연구 성과에 비해 미약하고 질적으로도 한 차원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구주제, 연구인력, 교육 인프라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Ⅲ. 상호관계와 연계점

#### 1. 상호관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 의미에서 경제학의 동남아 지역연구에 대한 공헌은 예상보다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원인은 동남아 지역연구와 경제학의 상호관계라는 측면에서 다음의

---

29) 본 논문에서는 연구원들의 실명은 제외한다.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동남아 지역연구와 경제학의 태생적인 연구 분야의 상이성이다. 동남아 지역연구는 분과학문에서 진행된 연구물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인문, 사회, 역사, 지리 등 다양한 분야를 다차원적, 총체적으로 다루는 종합학문의 성격을 띤다. 이렇게 볼 때 동남아 지역연구는 학제 간의 통섭 및 융합을 통해 분과학문의 연구 성과와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선 창조적이고 종합적인 분석과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유익함이 있다. 이에 비해 경제학은 전통적으로 재화의 생산, 분배, 소비라는 가계(개인), 기업, 정부(국가) 등 경제주체의 경제적 의사결정과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공정하게 생산, 분배, 소비할 수 있는가를 주된 연구 주제로 삼는다.<sup>30)</sup>

그러므로 경제학에서는 경제행위의 주체가 되는 가계(개인), 기업, 정부(국가)가 그 주요 분석대상이 된다. 물론 국제경제학, 개발경제학 등의 경제학의 세부 학문 분야의 경우 개별 국가의 차원을 넘어서는 초국가적, 국제적 경제현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국가가 분석 단위의 기초가 된다. 또한 국제경제학, 개발경제학 등의 경우에도 주된 관심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국가(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원의 배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학의 주된 관심사는 국민(국가)경제 내에서의 경제적 현상과 그것에 대한 인과관계의 규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를 넘어선 초월경적인

30) 일반적으로 경제학이 추구하는 가치는 크게 '효율'과 '공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효율'은 희소한 자원을 이용해 최소한의 노력(비용)으로 최대의 성과(생산 측면에서는 최대 생산, 소비 측면에서는 최대 효용)를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공평'은 주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의 문제와 관련된 가치로 경제학자 사이에서 많이 받아들여지는 공평의 정의는 '누구도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 상태'이다. '효율'과 '공평'과 더불어 '자유'를 추가하기도 한다. 사실 '효율', '공평', '자유'의 가치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으로 어느 하나를 극대화하려면 다른 것들은 억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세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될 것이다.

지역이라는 개념, 즉 ‘동남아’의 개념과 이에 대한 연구는 낯설고 본업이 아닌 예외적인 연구 분야가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가치추구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우선 경제학은 위에서 언급한 경제주체 및 경제현상에 대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효율(efficiency)’과 ‘공평(equity)’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공평한) 상태를 지향하는 가치판단과 이를 위한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sup>31)</sup> 다분히 가치지향적인 경제학에 비해 동남아 지역연구는 지역의 특성과 현상 그 자체에 대한 분석과 이해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둔다. 경제학자는 본인의 가치판단과 정책적 시사점이 현실적으로 정책당국에 의해 수용 또는 채택 가능한 상황에서 연구에 대한 활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지역연구에 있어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연구에 대한 경제학자의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연구를 위해 수집 또는 가공되는 자료 및 데이터의 성격 및 활용방법의 차이를 들 수 있다. 경제학에서는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수량화된 경제지표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적 작업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때 동남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시계열의 부재 또는 미비, 그리고 데이터가 있더라도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것도 경제학자의 동남아경제에 대한 연구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경제 분석에 필요한 통계자료가 잘 축적되어 있고 접근성이 용이한 선진국 등의 국가 및 지역의 경제를 연구하는

31) 경제학은 가치추구의 여부에 따라 가치 지향적 성격이 강한 규범경제학(normative economics)과 경제적 현상 자체를 분석하는 실증경제학(positive economics)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증적 경제 분석의 경우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치 지향적 분석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것이 통계자료를 구하기 어렵고 1차 자료가 있다하더라도 연구자의 재가공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동남아경제를 연구하는 것보다 비교우위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남아 지역연구는 현지조사 등과 같은 눈과 귀로 보고 듣는 다각적인 경험 및 사례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분석이 더욱 현실감과 설득력이 있다. 이에 비해 경제학자는 이미 가공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기 때문에 굳이 동남아 현지에 가지 않아도 연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자와 연구대상 지역과의 물리적 괴리는 경제학자의 동남아의 현지사정과 경제적 이슈에 대한 친밀감과 민감성, 그리고 동남아경제에 대한 직관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두 학문 간 상호접근성에 있어서 상이한 연구 분야와 특성으로 인한 난점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지역연구와 경제학은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상호 간 학문적 지평을 넓히고 연구주체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생(win-win)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우선 경제학의 세부 분야 중에서 동남아 지역연구와 연계성이 비교적 강한 국제경제학, 개발경제학 등에서 지역연구의 방법론 및 다양한 학문적 접근방법과 시각을 수용하고 그것을 경제학적으로 분석,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학은 동남아 지역연구와 관련된 산, 관, 학의 학문적 또는 정책적 교류와 토론을 통해 외국인 또는 타자(他者)의 입장에서 동남아 전체 및 개별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에게 보다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남아 지역연구는 경제학의 이론과 방법론의 수용을 통해 학문적 다양성을 담보하면서 과학적 학문 분야로서 그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 추구하고 있는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과학적 방법론을 원용 또는 활용함으로써 방법론적 차원에서 동남아 지역

연구의 학문적 과학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동남아경제의 특성 및 현상에 대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효율’과 ‘공평’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방향성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동남아 지역연구의 객체인 동 지역 및 지역 내 개별 국가에게도 보편적 가치실현을 위해 실제적으로 유용하고 활용 가능한 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동남아 지역연구는 경제학의 수용을 통해 지역 내에 포함된 개별 국가가 각각 표출하는 경제적 상대성과 특수성을 관통하는 지역 단위의 보편적 인과관계와 가치를 분석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11개 국가(동티모르 포함)가 존재하는 동남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고자 하는 동남아 지역연구의 기본적 전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위의 동남아 지역연구와 경제학의 상호 관계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두 학문 간 연계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2. 연계점

지역연구는 주로 제 3세계 또는 개발도상국(신흥경제국)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연구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 경제학에서의 지역연구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개발도상국 경제에 대한 연구와 관련성이 높은 개발경제학, 국제경제학, 경제발전론, 경제체제론 등의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이 중에서도 개발경제학(development economics)은 연구주제의 측면에서 제 3세계의 빈곤과 개발의 문제를 주요 분석과제로 다룬다는 점에서 동남아 지역연구와 공통분모가 존재한다. 개발경제학에서 주로 다루는 제 3세계 진영(국가)의 빈곤 및 저개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선진국 진영(국가)과의 상대적 격차 및 불균형이라는 구조가 존재한

다는 전제 하에서 전개된 종속이론 등의 경제체제론과 함께 전개되어 왔다. 특히 개발경제학은 경제학의 일반적 가정인 완전경쟁시장과 일반균형이라는 기본적 전제조건을 벗어나 소위 중심국과 주변국의 구도 속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불완전경쟁과 부분균형의 불안정성 지속 및 고착화라는 현실적 상황을 수용하고 인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주류 경제학에서는 개발경제학을 비주류 또는 아웃사이더 심지어 이단아로까지 인식해 왔다(황원규 2001).

만일 개발경제학의 방법론과 가치추구가 동남아 지역연구와 접목될 수 있다면 개발경제학은 경제학의 아웃사이더로 머물러 있던 한계에서 벗어나 경제학과 동남아 지역연구를 연결 또는 접목하는 중요한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발경제학은 주된 논의가 제 3세계와 선진국 진영 간의 불균형적 경제체제의 원인과 구조에 집중되어있어 제 3세계 위주의 특수 학문분야라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개발경제학과 동남아 지역연구와의 연결 또는 접목을 통한 외연적 확대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동남아 지역연구가 제 3세계에 대한 문제를 포함하는 동시에 보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을 위해서는 개발경제학의 동남아 지역연구 주제의 포괄 범위와 방법론의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경제학(international economics)은 주류 경제학의 입장에서 지역의 개별국가 및 지역 전체의 국제경제적 현상 및 이와 관련된 경제정책에 대한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최근 국가와 국경을 넘어서는 초국가적(transnational) 현상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학문적 트렌드를 감안해 보면 국제경제학은 동남아 지역연구와의 연계점을 찾는데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전통적(고전적) 국제경제학은 기본적으로 19세기 초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의 비교우위론에 기초하여 노동생산성 및 부존생산요소(자원)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제무역의 원인 및 구조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sup>32)</sup> 이러한 비교우위에 기초한 교역은 기술 또는 생산성의 차이(리카도의 비교우위론, Ricardian model)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고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부존량의 차이(헉셔-올린 모델, Heckscher-Ohlin model)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sup>33)</sup>

국제경제학은 이러한 비교우위를 기초로 국가 간 자유로운 무역을 통한 경제적 후생(효용)의 증대 및 극대화 가능성을 기본적 이론 토대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 국제경제학은 주류 경제학의 일반적 가정인 (i) 생산물과 요소시장이 가격기구에 의해 자동 조절되는 일반균형이론, (ii) 경제주체의 정보의 완전성에 기초한 완전경쟁의 가정, (iii) 생산요소 투입에 따른 수확 불변의 법칙, (iv) 생산요소의 국가 간 비이동성, (v) 운송비의 부재 등의 가정을 기본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들은 지역학의 주된 주제인 국가 및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비교 연구와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괴리

32) 19세기 초반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에 의해 처음 주창된 비교우위론은 당시 국가권력의 국가 간 교역 개입과 보호무역을 옹호하던 중상주의에 대한 도전에서 비롯되었다. 비교우위론은 국가 간의 생산성이 동일하지 않은 한 각 국가가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특화, 생산하고 이들 상품의 교역을 통해 항상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임으로써 자유무역을 지지한다. 자유무역을 기치로 한 비교우위론은 19세기 중반 이후 서구 열강들의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간 교역을 정당화하는 지배적인 무역이론으로 자리매김 되어 왔고 이후 보다 정교한 이론체계로 발전하게 된다.

33)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무역의 발생 원인을 국가 간 노동생산성의 격차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비교우위론은 재화의 상대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왜 국가 간에 생산성이 차이가 나는지 등 보다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20세기 전반기에 완성된 헉셔-올린 모델은 이러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근대적인 무역이론의 체계를 완성하였다. 헉셔-올린 모델에 의하면 국가 간에 재화의 상대가격과 생산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각국의 부존자원의 차이 때문이며 각국은 부존 요소 중에서 보다 풍부한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생산, 수출하게 된다.



를 가져오는 강한 가정들이다. 그러므로 국제경제학과 동남아 지역 연구 간의 보다 강화된 학제 간 융합을 위해서는 이러한 가정들의 완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198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신국제무역론(new trade theory)은 기존의 전통적 국제경제학의 가정을 완화하거나 보다 현실적인 가정을 도입함으로써 경제학의 보편성과 동남아 지역연구의 특수성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sup>34)</sup> 이를 통해 국제경제학의 입지가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활동도 면에서 한층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전통적 국제경제학이 무역을 통한 효용의 증대와 이를 통한 국가 간 상호이익을 이론적 토대로 하고 있는데 비해 신국제무역론은 효용의 증대라는 측면보다는 국제적인 무한경쟁의 구도 속에서 국가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및 정책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국제무역론은 1980년대 이후 대두된 신보호무역주의 또는 신중상주의라는 세계경제환경의 시대적 사조 변화를 보다 잘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남아 지역연구에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경제학의 기존 가정과 다른 신국제무역론의 가정 및 공헌은 (i) 불완전경쟁모형 및 수확체증의 법칙 도입, (ii) 기존의 생산요소, 재화, 교역당사국들이 각각 2개씩 존재하는 2x2x2 모형에서 탈피하여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 수직무역(vertical trade)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경제의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체계의 제공, (iii) 외부경제효과 도입을 통한

34) 1980년대 경제학계에는 불완전경쟁과 수확체증(규모의 경제)라는 조건하에서 관세나 쿼터 및 제반 경제정책을 연구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는데 이중 가장 주목되는 점은 불완전경쟁과 수확체증(규모의 경제) 등 기존 경제학의 전제들과 상이한 조건 하에서도 정부의 '전략적 무역정책'이 국가 전체의 후생 증가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한 것이다(Brander-Spencer 1985; Eaton-Grossman 1985; Krugman 1987).

최종재뿐만 아닌 산업 내 무역으로 대표되는 중간재 상품의 무역구조 설명, (iv) 전략적 무역정책이라는 전제 하에 국가의 개입을 통한 경쟁력 확보방안의 이론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의 완화를 통해 국제경제학은 보다 다양하고 현실성 있는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신국제무역론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가정의 완화를 통한 현실적 적용 가능성의 확대뿐만 아니라 국제경제학이 동남아 지역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별 국가를 포함한 동남아의 경제적 현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해외직접투자를 포함하는 국제자본의 유입이라는 점이다. 동남아는 일반적으로 1980년대 이후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에서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으로 급속히 대체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한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축적을 외국자본에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동남아 경제성장의 추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역 및 투자 더 나아가 노동의 이동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제학 이론과 방법론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둘째, 1990년대 이후 중국경제의 부상은 동남아 지역연구에 있어 더 이상 외생변수가 아닌 내생변수 또는 상수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경제의 확장에 따른 동남아경제에 대한 영향과 이에 대한 동남아의 반작용 및 대응은 국제경제학적 사고의 틀이 없이는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어려울 것이다.

셋째, 신국제무역론의 전략적 무역정책론은 동남아 국가의 통상정책과 경제개발전략의 성격과 변화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의 제 2장에서 살펴본 『동남아시아연구』를 포함한 경제학의 동남아 지역연구 논문을 세부 학문분야로 나누어 보면 크게 개발경제학(경제개발, 경제정책 등)과 국제경제학(국제무역, 국제금융 등)의 두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는 경제개발, 대외무역 및 자본유입을 통한 경제성장의 두 주제가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경제의 특성 상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동남아 지역연구와 경제학의 연계 점을 바탕으로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경제학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 IV. 방향성과 제언

##### 1. 방향성 모색을 위한 벤치마킹

어떤 사업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할 때 흔히 활용되는 것이 역할모델을 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그 장점과 특성을 배우고 따라가는 소위 벤치마킹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해 경제학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우선 그 역할모델을 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그 특징과 장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동남아 지역연구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동남아 지역연구기관인 미국 코넬대학(Cornell University)의 동남아시아 프로그램(Southeast Asia Program, SEAP), 일본 교토대학(Kyoto University)의 동남아시아연구소(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CSEAS), 싱가포르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의 동남아시아연구소(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ISEAS) 등의 3개 동남아 지역연구기관에서 경제학이 동남아 지역연구에 어떤 공헌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다.<sup>35)</sup>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경제학의 방향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먼저 코넬대학의 동남아시아 프로그램(SEAP)의 경우 그 교수진의 규모 및 구성부터 다른 기관을 압도한다. 2011년 8월 기준 19명의 다양한 분과학문의 전공 교수들이 포진되어 있고 학제 간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중 경제학 전공 교수는 3명(관련 전공자까지 포함하면 6명)으로 경제학자가 교수의 1/6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경제학 박사과정 학생들은 동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경제학과에서 제공하는 경제학 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남아 관련 과목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학적 방법론과 이론체계를 동남아 지역연구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갈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 교토대학의 동남아시아연구소(CSEAS)의 경우를 살펴보자. 교토대학의 경우 코넬대학과는 달리 ‘동남아학’ 전공 박사학위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sup>36)</sup> 또한 학제 간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8월 기준 18명의 다양한 분과학문의 전공 교수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크게 지역학(Division of Integrated Area Studies), 인문(Division of Human-Nature Dynamics), 사회·문화(Division of Socio-cultural Dynamics), 그리고 경제·정치(Division of Economic and Political Dynamics)의 4개 분야에 소속되어 활동하

35) 이외에 명망 있는 외국 동남아 지역연구기관으로는 영국 런던대학(University of London)의 SOAS(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호주 국립대학(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의 RSPAS(Research School of Pacific and Asian Studies) 등을 들 수 있다. SOAS의 경우 동남아학과(Department of South East Asia)가 개설되어 운영 중인데 주로 문화, 언어, 역사 등 인문과학 분야에 특화되어 있고 RSPAS의 경우 동남아에 대한 연구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기보다는 아시아 연구에 속해 있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동 연구기관들에 대한 분석은 제외한다.

36) 교토대학(Kyoto University)의 경우 아시아·아프리카지역대학(Graduate School of Asian and African Area Studies) 내에 생태·환경학과(Department of Ecology and Environment), 사회·개발학과(Department of Society and Development), 환경·사회·문화학과(Department of Environment, Society and Culture) 등 3개 학과로 이루어진 동남아학부를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또한 인문·환경대학(Graduate School of Human and Environmental Studies) 내에 동남아학과(Department of Southeast Asian Studies)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고 있다. 이중 경제·정치 분야에 소속된 학자는 총 5명으로 다른 분과와 대등한 위치에서 동남아 지역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동 연구소가 간행하는 『東南アジア研究』(동남아시아연구)는 1965년부터 발행된 가장 권위 있는 동남아 지역연구 전문학술지로 인정되고 있다. 동 학술지에 게재된 경제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순수한 경제학 논문보다는 다양한 학문이 활용되는 학제적 연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지조사 등을 통한 비공식적 통계의 활용과 이를 통한 연구결과가 전형적 경제이론 및 경제학 방법론에 의한 결과와 상이하다는 점도 흥미로운 일이다.<sup>37)</sup> 특히 동남아경제에 있어 중요한 주제로 인식되는 농림수산자원, 생태 및 관개 등의 연구가 돋보이며 인류학, 사회학을 넘나드는 학제적 연구 및 미시경제학 분석의 논문을 다수 볼 수 있다. 무역, 경영, 통상 등 주로 거시경제학의 주제가 다수인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일본의 동남아경제에 대한 연구는 농업, 개발, 환경, 생태학 등 최근 들어 더욱 부각되고 있는 동남아경제의 중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동 분야에 대한 주요성 및 관심이 높아지는 시대적, 학문적 추세를 볼 때 일본의 경제학, 특히 농업경제학의 동남아경제에 대한 이론 및 연구방법론 등에 수용 및 활용, 또 이를 위한 일본 학계와의 학제적 협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38)</sup> 아울러 일본의 동남아경

37) 가장 최근의 연구사례로 『東南アジア研究』 48권 2호(2010년 9월 발간)에 실린 사이타마대학(Saitama University) 경제학과 엔도 타마키(Endo Tamaki) 교수의 “Occupational Change and Upward Mobility of Low-Income Residents in Bangkok”을 들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방콕 거주 저임금 노동자들의 직업선택의 경로가 전통적 노동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비공식경제(informal economy)에서 공식경제(formal economy)로의 선형적 이동으로만 해석될 수 없음을 주장한다.

38) 일본의 경우 전통적으로 농업경제학 분야에서 동남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1940~50년대는 마르크시즘에 영향을 받아 동남아 농업부문에서의 생산양식

제연구를 위해 정부주도로 설립된 아시아경제연구소(Institute for Asian Economic Affairs, *Ajiken*)의 소위 현지조사 및 참여를 중시하는 연구방법론(Tôhata-ism)은 이후에도 일본 경제학의 동남아 지역 연구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39)</sup>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연구기관인 싱가포르국립 대학의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경우를 살펴보자. 1968년 출범한 ISEAS는 싱가포르 정부 및 대학의 전폭적 지원,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외국인 동남아학자들의 영입과 이들의 학문적 공헌, 다양하고 광범위한 대규모의 동남아 관련 자료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동남아 지역연구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sup>40)</sup> 동 연구소에서는 동남아 전반에 걸친 경제, 정치, 사회·문화, 환경·기후변화·에너지, 인구변화·개발, 여성(gender) 등 동남아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총 6개의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다.

각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다양한 세미나, 컨퍼런스, 전문가 초청 강연 등의 개최를 통해 학제적 연구를 통한 동남아 지역연구를 가능케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 등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 및 논문은 경제, 정치, 사회·문화 분야를 위한 각각의 학술지에 게재, 발표된다. 정치 분야의 논문은 *Contemporary Southeast Asia*, 사회·문화 분야의 논문은 *Journal of Social Issues*

---

및 계급구도에 대한 연구(colonial study)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후 농업분야의 내생적 발전과 변화에 대한 연구(agrarian study), 농업부문에서의 공동체의 역할 및 상호의존관계에 대한 연구(community study, institutional study), 농업부문에 있어서의 시장의 역할에 대한 연구(market study), 그리고 최근 등장하여 관심을 끌고 있는 지속가능한 인간, 생태, 사회 간의 상호간 연관성에 대한 연구(humanosphere study)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어왔다(Mizuno 2008).

39) Tôhata-ism이라는 명칭은 아시아경제연구소의 초대 소장이었던 Tôhata Seiichi 교수가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학제간의 연구, 사례 및 현지조사를 통한 연구 방법 등을 강조한데서 비롯되었다(Suheiro 1997).

40) 동남아 지역연구 분야에서 ISEAS가 어떻게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국(2010) 참조.

in Southeast Asia(SOJOURN),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의 논문은 ASEAN Economic Bulletin에 게재된다. 이중 경제 관련 학술지인 ASEAN Economic Bulletin에 최근 1984~2011년 사이 게재된 경제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총 논문 수는 342편으로 경제성장, 경제협력, 경제통합, 무역, 투자, 산업 등 거시 및 미시경제학 분야를 넘나드는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sup>41)</sup>

또한 동남아에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여러 주제를 가지고 연구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중 경제 관련 주제의 세미나도 상당히 많이 개최하고 있다.<sup>42)</sup> ISEAS는 동남아지역에 위치하는 지리적 이점과 동남아 지역연구 관련 전문 인력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이점, 동남아 전문가 및 학자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동남아와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들에 대한 동남아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및 think-tank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비교우위가 존재한다. 경제 이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여서 특히 최근에 발생한 경제 이슈에 대한 활발한 의견교환 및 경제학자들 간의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sup>43)</sup>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경제학의 발전방향을 시준해 볼 수 있는 역할모델을 할 수 있는 위 세 개의 연구기관을 보면 공통적으로 경제학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학제 간 연구와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각 연구기관들은 동남아경제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연구 성과를 축적해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남아경제 연구에 있어서 나름의 비교우위를

41) 논문의 상세 리스트는 내용의 광범위함으로 인해 제외한다.

42) 2011년 1~8월 ISEAS에서 개최된 세미나, 강연 등은 모두 25건으로 이중 경제적 이슈와 관련된 경우는 모두 8건으로 30% 이상을 차지한다.

43) 이처럼 ISEAS에서 경제 관련 연구가 활발한 것은 ISEAS가 다분히 정책지향적인 연구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이상국 2010).

창출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 발견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비교우위 면에서 유리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차원에서 동남아 지역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질 것이다. 특히 일본 교토대학의 농업경제학, 산림경제학, 생태경제학 등 동남아의 특성과 잘 부합되는 차별화된 동남아경제연구와 현지조사를 중요시하는 연구방법론 등은 한국의 경제학이 진일보한 동남아 연구를 위해 수용해야 할 학문적 장점들로 판단된다. 또한 싱가포르국립대학 ISEAS의 동남아경제 전문학술지(*Economic Bulletin of ASEAN* 등) 발간 등과 같은 사업은 비록 우리나라의 동남아경제 연구자들에게 단기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적어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 방향성 및 제언

위에서 살펴본 동남아 지역연구와 경제학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향후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경제학의 방향성이라는 측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세계화에 따른 동남아의 세계경제로의 편입과 통합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른 개별 국가, 지역의 변화를 보다 잘 분석할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이 동남아의 대내외적 경제관계의 이해와 분석에 특화하여 기여할 수 있다면 동남아의 대내외적 경제현상을 보다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정태적 부분분석을 동태적 일반균형분석으로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sup>44)</sup> 동남아의 특정한 경제 현상에 대한 정태적 분석뿐만 아니라 그 추세를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면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해 보다 유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동안 도시화, 경제통합 등 계량화하기 용이하지 않았던 국제경제의 큰 흐름을 모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예측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무역, 투자 등 개별 국가적 경제현상뿐 아니라 지역이라는 총체적 단위를 통해 창출되는 다양한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추계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남아 개별 국가의 산업정책과 동남아 개발의 양태, 정치체제와 도시화의 관계, 소비행태와 지역산업구조의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개별 국가 및 지역전체 차원의 경제적 영향 및 그 대응 방안, 생태·지리적 특성과 경제시스템의 변이 등 지역적 차원의 학제적 주제를 보다 용이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초국가적 이슈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동남아 지역연구에 새로운 활력과 도전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sup>45)</sup>

44) 경제 분석의 편의를 위해 직접 분석의 대상이 아닌 요소들은 제외해놓고, 다시 말해 ‘많은 가변적 상황을 불변으로 가정(ceteris paribus, other things being equal)’ 하고 분석하는 기법을 정태적 부분 분석(comparative static analysis)이라 하고 직접 분석의 대상이 아닌 요소들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경제변수들의 변화와 변수들 간 인과관계를 포괄하여 분석하는 것을 동태적 일반균형 분석(dynamic general equilibrium analysis)이라고 한다.

45) 2011년 10월 28~29일 일본 교토대학에서 한국동남아학회(KASEAS)-교토대 동남아시아연구소(CSEAS)의 제 2차 공동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Green and Life in ASEAN: Coexistence and Sustainability in East Asian Connections*라는 주제 하에 개최된 본 학술대회에서는 제 1차 학술대회의 거시적이고 일반론적인 논의들의 수준을 뛰어 넘어 보다 심층적이고 미시적인 학문적 이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또한 그동안 동남아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후변화, 노인보건 문제 등 자연과학, 의학, 보건학 등과 관련된 연구발표 및 이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에 이어 2012년 5월 11~12일 영남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동남아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는 “초국적 지역/공간으로서의 동남아시아: 지역내/지역간 비교와 초국적 접근을 중심으로(*Transnational Southeast Asia: Comparative and Transnational Approaches*)”이라는 주제 하에 초국적, 비교적 접근으로 현대 동남아의 사회, 문화, 정치, 국제관계의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3년 5월 목포대에서 개최 예정인 KASEAS-CSEAS 제 3차 공동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동남아시아의 경계 넘기와 상호 연계성(*Border-crossing and*

넷째, 동남아를 연구하는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그 동안 경제학에서 비교적 지역연구와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왔던 개발경제학이 1960~70년대의 전성기 이후 침체기를 거치고 있는 현상을 타개하고 새로운 학문적 비교우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남아 지역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분산되어 있는 경제학의 역할과 입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남아 지역연구가 경제학 내부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학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동남아 지역연구의 외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sup>46)</sup>

다섯째, 동남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발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전통적 생산요소로 간주되어 온 노동, 자본, 토지 등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 안보 등과 같은 비전통적 요소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동남아의 초국가적 이슈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세계경제체제 내에서의 동남아 지역과 여타 주요 지역과의 연관 정도에 대한 고찰 및 인근 주변부와의 상호관계, 통합의 기제를 보다 더 과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경제학의 방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동남아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를 위한 본 논문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제적 연구의 특성이 강한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해 경제학자 스스로 경제학자 본연의 정체성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학제적 연구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이를 통해 연구주체의 다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2장에서 본 바와

*Connectivity of Southeast Asia*)”이라는 주제로 지금까지의 초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연구들에 대한 양국 동남아 연구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46)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동남아 지역연구의 외부경제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경제학계에서 지역연구라는 특성화된 분야에 대한 비교우위의 획득 및 지역전문가라는 학문적 성과와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같이 기존 경제학의 동남아 지역연구의 주된 연구주제는 무역, 투자, 경제협력, 경제개발정책 등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류학, 역사학, 정치학 등 동남아 지역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타 학문 분야와의 지속적인 학문적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새로운 부문으로의 확장 및 개척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경제현상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학문 분야의 학자들과의 집단적 연구의 형태로 확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경제학 분야의 부족한 인적자원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초국가적 경제현상에 대한 연구나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에 있어 공백으로 남아있는 동남아경제사<sup>47)</sup> 분야의 연구를 위해서 경제학자, 역사학자, 정치학자, 인류학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 등이 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sup>48)</sup>

둘째, 기존의 주된 연구주제였던 경제통합, 무역, 통상 등 거시경제학, 국가적 차원의 연구에서 벗어나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의사결정 과정과 특성에 대한 미시경제 또는 개별 경제주체 차원의 연구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동남아경제연구와 같이 현지조사를 통한 경제주체들과의 직접적 접촉과 방법론이 필요할 것이다(조흥국 2001). 현지조사를 통한 실증적 자료 발굴과 통계 구축을 통해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동남아경제에 대한 보

47) 경제사학(economic history)은 역사적 전개에 따른 경제구조, 생산양식 등의 경제적 변화 과정을 연구하는 경제학과 역사학이 조우하는 학문 분야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제의 변화 과정에는 생산, 소비, 분배의 경제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 방식 및 경제적 이익이 어떻게 결정되고 변화되는지에 대한 주제도 포함한다. 또한 경제사학은 역사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통계적인 접근 그리고 당대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 등 연구주제로 설정된 시기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력과 이해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경제학적 이론(모델)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정치학, 사회학, 역사학, 인류학 등 다른 인문, 사회과학의 학문적 성과도 학제적인 연구를 위해 활용되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남아경제사 연구는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 학제적 접근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8)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부산외대의 동남아지역원을 중심으로 동남아 경제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다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동남아경제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논의를 보다 실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현지조사는 비단 미시적 차원의 경제 분석을 위한 방법론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계구축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동남아경제의 특성 상 거시경제학 차원의 연구를 위해서도 유익한 기초통계와 자료 그리고 경제에 대한 풍부한 직관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셋째, 그동안 주로 수행되어 온 개발경제학과 국제경제학 부문의 연구뿐만 아니라 금융, 재정, 환경, 지리, 경제사 등 다양한 응용경제학 분야로 외연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 동남아는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국가의 역할이 약화되고 대신 시장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 놓여있다. 시장의 역할이 증대될수록 경제학적 논리는 직접적으로 보이는 생산, 소비 등의 대표적 경제활동의 차원을 넘어서 보다 다양하고 광범위한 부문으로 확대되어 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이슈에 대해 경제학적 분석과 해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보다 적극적인 연구자 간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제학자의 개별적 연구 및 非경제학자들과의 공동연구와 같은 일부 성과가 있었던 반면 동남아경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공동연구물은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동남아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의 학술모임도 부재하다. 개별 연구의 경우에도 경제학자들 간의 연구의 공유 및 피드백 등을 통한 의사소통 및 교류 확대가 요구된다. 아울러 국내의 해외지역연구 관련 학회의 동남아 관련 연구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스크린을 통해 지역연구 관련 연구물들을 제공하고 있는 경제연구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해외의 경제학 분야의 동남아 지역연구에 있어서의 주요한 추세와 연구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이 필요하고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경제학의 세계적 추세를 놓치지 않을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학으로서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적어도 “특정분과가 요구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분석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향후 경제학이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동남아 지역연구에 더욱 공헌하기 위해서는 동남아 지역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경제학자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제도화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제도화가 단기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동남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학 전공 학부생, 대학원생에 대한 개별적 멘토링과 사사를 통해 그들이 현재의 경제학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동남아 지역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동남아경제 연구인력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sup>49)</sup>

마지막으로 난해해 보일 수 있는 경제학적 분석을 비전공자들이나 일반 대중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내용을 소통 가능한 언어로 변환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동남아경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동남아경제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연구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V.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먼저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경제학의 연구 성과 및 기여에 대해 알아보고 동남아 지역연구와 경제학의 상호관계 및 연계점, 그리고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경제학의 방향성 및 몇 가

---

49)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최근 한국동남아학회에서 동남아경제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를 지도교수로 박사과정에 있거나 박사과정을 마친 신진 연구자들에게 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의 기회를 적극 제공해 주는 사례는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다.

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내의 대표적인 (동남아) 지역연구분야 학술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남아 지역연구에 있어서의 경제학의 공헌과 그 위치를 가늠해 보았다. 동남아 지역연구의 대표적인 학술지라고 할 수 있는 『동남아시아연구』의 경우 양적인 면에서는 경제 관련 논문이 상당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순수한 의미에서 경제학자가 생산한 경제학적 논문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연구 학술지의 경우에도 동남아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할뿐더러 동남아경제에 대한 논문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학의 지역연구, 특히 동남아에 대한 무관심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분과학문으로서의 경제학과 학제적 학문으로서의 동남아 지역연구가 갖고 있는 서로 다른 학문적 특성과 간극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는 ‘동남아학’을 지향하는 동남아 지역연구의 과학성 제고를 위한 경제학의 기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급격히 변화되는 국제경제 환경은 동남아 지역연구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는 이전에도 학제적 연구의 중요성이 전제되긴 했지만 최근 국가의 경계와 기존의 학문분과의 영역을 넘어서는 초국가적 사회 현상들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학문 간 융합과 학제적 연구를 통해 외연의 확대 및 그 내용의 질적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학은 동남아 지역연구가 이러한 시대적 추세와 학문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 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학은 사회과학의 여러 분과학문 중 비교적 모형화, 계량화의 노력을 일찍부터 기울여 오으로써 관찰대상의 변화추세에 대한 객관적 예측력을 제고시켜 온 학문분야이다. 따라서 경제학의 이론 및 방법론의 수용을 통해 동남아 지역연구는 보다 공고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학 분야 중에서도 개발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의 시각과 방법론은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경제학의 학문적 변화 추세는 동남아 지역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경제학이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하는 가정 및 명제들을 포함하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분석의 기본 단위인 국가의 틀과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것과 같이 동남아 지역연구도 개별 국가의 차원을 벗어나 초국가적인 문제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상호간의 공통분모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경제학은 동태적 일반균형이론의 미시적 기반 위에서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국내적 관점에서뿐 아니라 국제적 관점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기존 경제학의 다른 어떤 분과보다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동남아 지역연구가 ‘동남아학’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인접학문 분야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과학성 논쟁을 잘 극복하고 스스로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학문적 콘텐츠를 발굴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듯 동남아 지역연구의 학문적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경제학의 연구주제와 방법론을 수용하는 동시에 경제학이 동남아 지역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남아학’을 포함하는 지역학의 학문적 정체성이 아직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았고 설사 확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개별 분과학문 간의 경계와 장벽이 훨씬 높다는 현실 인식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보면 국가의 정책 및 시대적 필요에 의해 분과학문의 성립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sup>50)</sup> 세계화의 진행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국

50) 저자가 몸담고 있는 국제통상학부의 예를 들어보자. 한국에서는 무역학 내지는 국제통상학이 독자적인 학문분야로 인정되어 독립적 학과(부)단위로 각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독립된 학문분야가 아닌 경제학(과)의 한 하위 학문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한국에

가 및 지역 간 경제협력 및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인 우리나라에 있어 국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동남아를 포함한 ‘지역’에 대한 전문적 이해 및 연구는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석사 과정에서 동남아를 공부하기 시작한지 10여 년이 지나는 저자가 경제학을 전공한 연구자로서 동남아 지역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반성에서 시작된 만큼 자기성찰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동남아 지역연구의 ‘동남아학’으로의 발전적 전환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가치지향적인 시각에서 작성되었다. 이로 인해 본 논문은 다분히 사변적이고 현재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한 논의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동남아 지역연구를 위한 학제적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인 전략들을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도출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이를 현실에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동남아경제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을 비롯한 동남아 연구자들의 조언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향후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 및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동남아 지역연구, 지역연구, 경제학, 개발경제학, 국제경제학, 신국제무역론, 학제적 연구

---

있어서만 무역학이 고유의 학문적 방법론과 이론체계를 갖추고 있다기보다는 한국이 1960년대 이래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전략을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이에 따른 무역인력 수요의 급증 및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의해 무역학 내지는 국제통상학이 분과학문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각 대학에서 국제지역학과(부)가 신설, 확대되고 있는 현상도 ‘지역학’의 독립적 학문으로서 정립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세계화에 발맞추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우리나라의 시대적 필요성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교토대학 동남아시아연구소 웹사이트. <http://www.cseas.kyoto-u.ac.jp>
- 국제지역연구학회. 『국제지역학논총』 2007-2011 각 권(호).
-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 1997-2011 각 권(호).
- 길인성. 1995. “근대 전기의 향료무역과 동남아 경제.” 『동남아의 정치 경제: 산업화와 발전전략』. 21세기한국연구재단 편. 3-39.
- 김경일 편. 1998.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 문화과학사.
- 박노호. 1996. “지역학과 경제학.” 『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 국어대학교 대학원 지역학연구회 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77-98.
- 박변순. 2011. “한국의 동남아 경제 연구.” 『아시아리뷰』 창간호: 227-258.
- 박승우. 2009. “한국의 동남아시아 지역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9(1): 215-275.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아연구』 1982-2011 각 권(호).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1997-2011 각 권(호).
- \_\_\_\_\_.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2003-2011 각 권(호).
- 신윤환·이성형. 1996.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국가전략』 2(1). 세종연구소.
-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동남아시아연구소 웹사이트 <http://www.iseas.ac.sg>
- 야노 토루. 1997. 『지역연구의 방법』. 아시아지역경제연구회 역. 전해원.
- 오명석 외. 2008. “기획좌담,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

- 구: 학문분야별 회고와 성찰.” 『동남아시아연구』 18(2): 331-399.
- 이상국. 2010. “발전 속의 저발전: 싱가포르 동남아 지역연구 발전사.” 『동남아시아연구』 20(3): 101-145.
- 이상섭·권태환 편. 1998.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수훈. 1998. “한국의 지역연구와 사회과학.”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전. 1999. “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해외지역연구.” 『국제지역연구』 3(1): 65-80.
- 이창규, 정유경. 2008. “변곡점 위의 3.5세대, 동남아 교육환경을 말한다.” 『동남아시아연구』 18(2): 299-329.
- 이희연. 1996. 『경제지리학』. 법문사.
- 전성홍. 2002. “한국의 지역연구 과제: 필요성, 정체성, 방향성 인식의 혼란 극복을 위하여.” 『국가전략』 8(2). 세종연구소.
- 전제성. 2006.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 동향과 과제: 제3세대 연구자 선언을 기대하며.” 『동아연구』 50: 109-140.
- \_\_\_\_\_. 2010. “한국의 동남아 지역연구와 정치학계의 기여.” 『국제정치논총』 50(2): 237-249.
- \_\_\_\_\_. 이재현. 2008. “한국의 동남아학 교육과정과 지역연구자 육성모델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8(2): 255-297.
- 정해조. 1998. “지역연구의 연구방법론(1).” 『국제지역연구』 2(2): 317-334.
- 조기숙. 1998. “한국에서의 지역연구: 정체성과 방법론.” 『세계지역연구논총』 12: 7-34.
- 조흥국. 2001. “동남아시아 연구의 문제와 과제.” 『국제지역연구』 5(1): 1-26.

코넬대학 동남아시아 프로그램 웹사이트 <http://www.einaudi.cornell.edu/SoutheastAsia>

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1992-2012.2. 각 권(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연구』 1997-2011  
각 권(호).

\_\_\_\_\_.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2003-2011.2 각 권(호).

한국태국학회. 『한국태국학회논총』 1997-2011 각 권(호).

황원규. 2001. “경제학의 변용과 해외지역연구의 방향.” 『국제지역  
연구』 5(1): 1-26.

Brander, R. and B. Spencer. 1985. “Export Subsidies and International  
Market Share Rivalry.”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18: 227-242.

Eaton, J. and G. Grossman. 1985. “Optimal Trade and Industrial  
Policy under Oligopol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1: 383-406.

Krugman, P. 1987. “Is Free Trade Pass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2): 131-144.

Mizuno, K. 2008. “Japanese Study on Rural Southeast Asia and  
CSEAS Kyoto University: From Colonial Studies to  
Sustainable Humanosphere.” 2008년 한국동남아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문.

Suheiro, A. 1997. “Bodies of Knowledge: How Thinktanks Have  
Affected Japan's Postwar Research on Asia.” *Social Science  
Japan* 9. Newsletter of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Tokyo.

(2011. 08. 12. 투고; 2011. 09. 23. 심사; 2012. 06. 15. 게재확정)

## [참고]

&lt;표1&gt; 『동남아시아연구』 게재 경제 관련 논문

번호	제 목	주 제	저자 전공	연 도	경제학 모델 사용
1	한국의 대개도국 경제협력: 개념과 접근방법	경제협력	경제학	1992	No
2	필리핀의 수입대체산업화: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경제학	1992	No
3	인도네시아 도시의 공개적 실업과 불완전 취업	노동경제	정치학	1994	No
4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화 전략	국제경영	경영학	1994	No
5	동남아에 대한 일본의 경제외교: 대외직접투자의 목적과 성과	국제경영	정치학	1996	No
6	동남아 투자기업의 경영관리 현지화 연구	국제경영	무역학	1996	No
7	Vietnam's Doi Moi and Political-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Vietnam	경제협력	정치학	1996	No
8	싱가포르의 국가조합주의적 노사관계에 대한 고찰	노동경제	사회학	1996	No
9	베트남의 대외경제정책과 대미관계 개선전망	경제정책	정치학	1996	No
10	인도네시아 경제개혁: 민영화와 규제완화	경제정책	정치학	1997	No
11	라모스정권의 경제개혁과 민주체제의 공고화	경제정책	정치학	1998	No
12	경제성장과 정당성 사이에서: 1990년대 노사분규의 폭증과 인도네시아 정부	경제정책	정치학	1998	No
13	메콩강유역 개발사업과 환경 자원 갈등	경제개발	정치학	1998	No
14	The 1988 Vietnamese Banking Reforms: Its Development and prospects	금융산업	경제학	1998	No
15	태국의 외환위기와 금융개혁	경제정책	경제학	1998	No
16	베트남의 경제개혁과 구조전환에 관한 고찰	경제정책	경제학	1999	Yes
17	금융위기를 전후한 아세안 외국인투자환경의 변화	국제경영	경영학	1999	No
18	동남아 경제성장의 결빙과 금융위기: 타이와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정책	정치학	1999	No
19	경제위기, 정치개혁,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한인기업 노동문제	국제경영	정치학	1999	No
20	아시아 경제위기의 교훈과 동남아 경제의 장기과제	경제정책	경제학	2000	No
21	태국의 노동시장 변화와 외국인 불법 노동자 문제	노동경제	정치학	2000	No
22	베트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방안에 관한 연구	금융산업	경제학	2000	No
23	베트남 경제의 사유화	경제정책	경제학	2000	No
24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 내실 없는 일탈	경제정책	경제학	2000	No
25	태국 금융산업의 문제점과 금융개혁	금융산업	경영학	2000	No
26	동남아 국가의 경쟁력에 관한 연구: 컨테이너 항만 인프라를 중심으로	산업	국제통상	2001	No
27	경제위기 이후의 아세안과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	경제성장	경제학	2001	Yes
28	14-17 세기 동남아-중국-일본 무역관계	경제사	역사학	2001	No
29	베트남 노동시장의 개혁: 과제와 방향	노동경제	경제학	2001	Yes

30	ASEAN 주요국의 교역장벽 연구	국제무역	경제학	2002	Yes
31	싱가포르 경제의 진로와 과제	경제정책	경제학	2003	No
32	동아시아 지역주의: ASEAN의 시각과 전략	경제협력	경제학	2004	No
33	동남아의 경제위기와 구조개혁: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금융산업	경제학	2004	No
34	환율이 말레이시아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국제금융	경제학	2005	Yes
35	한국 IT 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 전략에 관한 조사연구	산업	경영학	2005	No
36	The Recent Development of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경제협력	경제학	2005	No
37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Vietnam and Korea through Foreign Direct Investment	경제협력	경영학	2005	Yes
38	Commodity Trade and Exchange of Human Resources between Korea and Vietnam	국제무역	경제학	2006	Yes
39	Bilateral Trade between Korea and Vietnam: Issues and Prospects	국제무역	경제학	2006	No
40	ASEAN-인도 자유무역지대 추진현황과 전망	경제협력	경제학	2006	No
41	베트남 철강산업의 변화 및 전망	산업	경제학	2008	Yes
42	한국의 대 아세안(ASEAN) 공적개발원조(ODA) 정책-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의 이중주	경제협력	정치학	2008	No
43	ASEAN 주요국의 수출, 직접투자유입 및 경제성장간 상호관계 연구-시계열 및 패널자료 인과관계 분석	국제경제	경제학	2008	Yes
44	Chinese FDI towards ASEAN	국제금융	경제학	2008	No
45	동남아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성과분석	국제금융	경제학	2009	Yes
46	동남아 전자금융서비스 시장 진출 방향과 정책	금융산업	경제학	2009	No
47	한국의 대 라오스 공적개발원조(ODA) 효율화 전략에 관한 연구	경제개발	경영학	2009	No
48	ASEAN 역내경제협력 효과 분석: 역내교역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경제학	2009	Yes
49	수출주도 경제성장 혹은 수입주도 경제성장?-ASEAN 주요국의 경우	국제무역	경제학	2010	Yes
50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동남아 경제의 대응과 변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국을 중심으로	국제경제	경제학	2010	No
51	최근 경제위기들과 ASEAN 주요국의 무역	국제무역	경제학	2010	Yes
52	동남아의 인구변동: 1950-2050년	인구경제	경제학	2010	Yes
53	양대 경제위기와 달러화 현상: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사례 연구	국제금융	경제학	2011	Yes
54	아세안 금융시장 통합: 현황과 통합 가능성	국제금융	경제학	2011	No
55	아세안+3 지역 경제통합의 조건과 발전 과정	국제무역	경제학	2011	No
56	한국과 주요 ASEAN 제국간의 무역결합도 변화추이	국제무역	경제학	2011	Yes
57	한국의 동남아에 대한 직접투자가 교역에 미치는 영향분석	국제무역	경제학	2012	Yes

주 1) 공저인 경우에는 제 1저자의 전공을 기준으로 함

2) 경제학자가 작성한 논문은 굵은 글씨로 표시

&lt;표2&gt; 서강대 동아연구소 간 『동아연구』 게재 동남아 관련 논문

번호	제 목	주제	저자 전공	연 도	경제학 모델 사용
1	아세안제국 내에서의 공산주의운동의 실태	정치	정치학	1986	-
2	베트남공산주의운동의 기원과 전개	정치	정치학	1986	-
3	인도네시아 화인들의 종교: 적응과 변용	종교	정치학	1996	-
4	베트남에서의 “한류”: 그 형성과정과 사회경제적 효과	문화	정치학	2002	-
5	싱가포르에 “한류”가 존재하는가	문화	정치학	2002	-
6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와 헌법개정	정치	정치학	2002	-
7	수하르토 치하 인도네시아에서 노동계급의 “조직화 없는 저항”	정치	정치학	2002	-
8	태국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와 민주화과정: 1973년과 1992년의 민주화과정 비교	정치	정치학	2002	-
9	UMNO의 파벌주의와 충돌하는 말레이 민족주의	정치	정치학	2002	-
10	신 국제질서 하의 중국, ASEAN 관계발전 전망	정치	정치학	2002	-
11	베트남-중국 관계의 역사적 전개와 현재: 협력과 갈등의 이중주	정치	정치학	2003	-
12	동남아 역사교과서의 일본점령기 평가	역사	공저	2003	-
13	필리핀 민족주의와 미군기지 철수의 재조명	정치	정치학	2003	-
14	A Critical Review of Clifford Geertz's Interpretation of Javanese Religion	종교	정치학	2003	-
15	동남아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선택: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정치	정치학	2004	-
16	인도네시아의 경제위기와 노동법 개정: 통제와 보호로부터의 “이중적 자유화”	노동	정치학	2004	-
17	베트남 여조의 성립과 유교이념의 확립: 불교이념으로부터 유교이념으로	역사	역사학	2005	-
18	필리핀의 “피플 파워”와 중산층: “변화 없는” 사회의 역동성	정치	정치학	2005	-
19	말레이시아의 정치경제: 경제위기와 마하티르를 넘어 신자유주의 국가로	정치	정치학	2005	-
20	한국의 동남아 연구 동향과 과제: 제3세대 연구자 선언을 기대하며	지역 연구	정치학	2006	-
21	국가, 계급, 민족-그 역동적 상호작용: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의 비교연구	정치	사회학	2006	-
22	혁명영화에서 상업영화로: 베트남 영화사를 중심으로	문화	언어학	2006	-
23	미얀마-아세안 관계 발전: 아세안의 정책변동과 미얀마 군사정부의 대응	정치	정치학	2006	-
24	동남아의 후발산업화, 지구화, 그리고 선거민주주의	정치	정치학	2006	-
25	아세안과 한국의 문화협력 활성화 모색을 위한 소고	문화	인류학	2006	-
26	한국이 보는 베트남전쟁: 쟁점과 논의	정치	정치학	2006	-
27	태국의 지역 및 종족갈등에 대한 시론적 연구	지역	동남아학	2006	-
28	태국의 선거와 정치구조의 변화	정치	정치학	2007	-
29	베트남여성의 한국으로의 결혼이민: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고찰	이주	역사학	2007	-

30	국가와 경제발전: 독립 이후 필리핀 경제를 중심으로	경제발전	정치학	2007	-
31	동남아의 위기극복과 정치리더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비교연구	정치	정치학	2007	-
32	민주적 제도, 비민주적 정치 군사 쿠데타: 태국의 정치현실을 통해본 신생민주주의의 제도적 역설	정치	정치학	2007	-
33	인도네시아의 총체적 위기와 메가와티의 정치리더십	정치	인류학	2007	-
34	20세기 초 베트남 지식인들의 동아시아 인식	역사	역사학	2007	-
35	<b>싱가포르 바이오산업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에 주는 교훈</b>	산업	<b>경제학</b>	<b>2007</b>	<b>No</b>
36	확대지향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아세안의 인식과 대응	정치	정치학	2008	-
37	인도네시아 이슬람의 자유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종교	인류학	2008	-
38	동남아의 지역주의와 “동아시아 공동체”: 그 역사에 대한 재해석	정치	정치학	2009	-
39	캄보디아의 2008년 총선: 선거권위주의의 공고화	정치	정치학	2009	-
40	A Mid-19th Century Southern Literature ‘Lục Vân Tiên,’ and the Anti-French Resistance	역사	역사학	2009	-
41	동남아 은퇴이주의 실태와 전망	이주	정치학	2009	-
42	베트남 전쟁과 관광	정치	인류학	2009	-
43	말레이시아 다종족 정당정치의 정치발전적 함의	정치	정치학	2009	-
44	인도네시아 아찌의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의 역사해석: 유누스 자밀과 알리 하쉬미, 그리고 하산 디 띠로를 중심으로	역사	역사학	2010	-
45	머라이언 박물관: 싱가포르의 국가 만들기	정치	고고미술사학	2011	-
46	전통과 이슬람: 인도네시아 근대 모스크 건축 양식의 이해	문화	인류학	2011	-

주 1) 공저인 경우에는 제 1저자의 전공을 기준으로 함  
 2) 경제학자가 작성한 논문은 굵은 글씨로 표시

<표3> 지역연구학회 간 『국제지역연구』 게재 동남아 관련 논문

번호	제 목	주 제	저자 전공	연 도	경제학 모델 사용
1	메콩강 하류유역국가의 지역협력에 관한 연구	국제지역	정치학	2000	-
2	메콩강 유역국가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제지역	역사학	2000	-
3	메콩델타-역동적인 문화와 역사적 세계	국제지역	정치학	2000	-
4	중국의 對메콩강유역개발정책 및 의의	국제지역	정치학	2000	-
5	<b>메콩강 유역의 교역 네트워크</b>	<b>국제통상</b>	<b>경제학</b>	<b>2000</b>	<b>No</b>
6	<b>경제학의 변용과 해외지역연구의 방향</b>	<b>국제지역</b>	<b>경제학</b>	<b>2001</b>	<b>No</b>
7	동남아시아 연구의 문제와 과제	국제지역	역사학	2001	-
8	태국의 경제성장 과정과 특징: 1997년 경제위기의 배경적 고찰	경제성장	정치학	2003	-
9	<b>1980년대 싱가포르 임금개혁의 특징</b>	<b>노동</b>	<b>경제학</b>	<b>2004</b>	<b>No</b>
10	동남아시아 지역통합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	경제통합	정치학	2004	-

11	다문화사회로서의 항구도시: 말레이시아 멀라카에서의 외래문화의 수용	인문	인류학	2006	-
12	인도네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쟁우위요인과 경영성과에 대한 연구	국제경영	경영학	2007	-
13	<b>한-ASEAN FTA 상품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b>	<b>국제경제</b>	<b>경제학</b>	<b>2007</b>	<b>Yes</b>
14	Effect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Market Entry Strategy on Financial Performance in Vietnam	국제경영	경영학	2008	-
15	<b>CGE모형을 이용한 한-아세안 FTA 서비스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b>	<b>국제통상</b>	<b>경제학</b>	<b>2008</b>	<b>Yes</b>

- 주 1) 공저인 경우에는 제 1저자의 전공을 기준으로 함  
 2) 경제학자가 작성한 논문은 굵은 글씨로 표시

<표4> 한국의국어대학교 간 『국제지역연구』 및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게재 동남아 관련 논문

번호	제 목	주 제	저자 전공	연 도	경제학 모델 사용
1	메콩강 개발과 동남아 지역협력 전망	국제지역	정치학	1997	-
2	아세안 자유무역지대의 현황과 전망	경제통합	경영학	1998	-
3	<b>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b>	<b>국제지역</b>	<b>경제학</b>	<b>2000</b>	<b>No</b>
4	절대군주와 타이 사회: 1932년 이전 태국 국왕의 정치, 문화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역사적 고찰	국제지역	역사학	2003	-
5	<b>말레이시아 조세제도와 조세수입구조 분석</b>	<b>재정</b>	<b>경제학</b>	<b>2004</b>	<b>No</b>
6	인도네시아의 세계화 현상연구: 수하르토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국제지역	정치학	2005	-
7	<b>도이머이 이후 베트남의 수출과 경제성장</b>	<b>경제개발</b>	<b>경제학</b>	<b>2007</b>	<b>No</b>
8	인도네시아 도덕경제 시스템의 담론의 유래와 현황	국제지역	역사학	2008	-
9	<b>동남아시아 철강산업과 경제성장: 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중심으로</b>	<b>경제성장</b>	<b>경제학</b>	<b>2010</b>	<b>Yes</b>
10	<b>Determinants of FDI Flows into Indonesia and Singapore</b>	<b>국제경영</b>	<b>경제학</b>	<b>2010</b>	<b>Yes</b>
11	<b>Dynamic Patterns of Korea-Vietnam Trade Relations</b>	<b>국제무역</b>	<b>경제학</b>	<b>2010</b>	<b>Yes</b>

- 주 1) 공저인 경우에는 제 1저자의 전공을 기준으로 함  
 2) 경제학자가 작성한 논문은 굵은 글씨로 표시  
 3) 1~9번은 『국제지역연구』, 10~11번은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게재 논문임



<표5>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간 『국제·지역연구』 및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게재 동남아 관련 논문

번 하	제 목	주 제	저자 전공	연 도	경제학 모델 사용
1	인도네시아의 화교와 화교자본	정치경제	정치학	1993	-
2	마르크스 권위주의 체제와 Moro 분리독립운동	정치	정치학	1993	-
3	미얀마(버마)의 종족집단과 종족분쟁	정치	언어학	1993	-
4	태국 내 소수종족에 관한 연구	정치	정치학	1993	-
5	현대말레이시아의 말레이 민족정체성의 문화적 의미	문화	인류학	1993	-
6	인도네시아 정치발전에 관한 연구	정치	정치학	1993	-
7	동남아시아의 사회계층	사회	공저	1993	-
8	<b>아세안의 경제통합: 투자협정 발전 측면에서의 고찰</b>	<b>경제통합</b>	<b>경제학</b>	<b>2009</b>	<b>No</b>
9	<b>중국-ASEAN 간 경제통합: FTA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b>	<b>경제통합</b>	<b>경제학</b>	<b>2009</b>	<b>Yes</b>
10	<b>Contrasting Northeast and Southeast Asian 'Capitalism'</b>	<b>경제체제</b>	<b>경제학</b>	<b>1996</b>	<b>No</b>
11	Economic Crisis, Poverty, and the Emergence of Populism in Thailand	정치	정치학	2005	-
12	Impa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rade Flows in ASEAN Countries	국제경영	경영학	2007	-
13	<b>The Recent Economic Performance and Poverty Reduction in Vietnam</b>	<b>경제개발</b>	<b>경제학</b>	<b>2007</b>	<b>Yes</b>

- 주 1) 공저인 경우에는 제 1저자의 전공을 기준으로 함  
 2) 경제학자가 작성한 논문은 굵은 글씨로 표시  
 3) 1~9번은 『국제·지역연구』, 10~13번은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게재 논문임

<Abstract>

## Southeast Asian Studies and Economics in Korea

RA, Hee-Rya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performances of economics for Southeast Asian studies and find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s and Southeast Asian studies in Korea. Based on this we try to find the direction and the way how economics contributes to Southeast Asian studies. First of all, we look into several journals on area studies, such as *Review of Southeast Asia*, and find out that economics researches on Southeast Asia are much fewer than expected. This shows that Korean economists are not much interested in the issue of Southeast Asia and reflects the academic differences as discipline in economics and interdisciplinary Southeast Asian studies. However, we could find the common area that economics and Southeast Asian studies can share. Also, we suggest some points that economics contributes to development of Southeast Asian studies toward a independent academic discipline. It includes the theory and methodology of international, and development economics.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economic integration by globalization needs new and modified economic theory and methodology for research on Southeast Asia. Adopting the objective and statistical methodology of economics

could level up Southeast Asian studies as social science. Also, Southeast Asian studies need to recruit more actively economics research topics and methodology. Economics could at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Southeast Asian studies.

**Key Words:** Southeast Asian studies, area studies, economics, development economics, international economics, new trade theory, interdisciplinary study

